

# 떠나는 대덕, 암담한 '과학한국'

60여개의 정부 출연연구소와 기업연구소가 몰려있는 대덕연구단지는 지난 1년 사이 5천여명의 연구인력이 희망 또는 명예퇴직으로 이곳을 떠났다.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던 대덕단지가 알뜰한 월급봉투, 끊어지는 연구비로 오후 5시반만 넘으면 연구원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가 어둡고 우울하다. 대덕단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10명 가운데 8명이 연구소를 떠나고 싶다고 하는 현장을 가본다.

전국에서 학력수준이 가장 높다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국내 첨단과학기술의 메카로 통하던 대덕연구단지에 과학자들이 부쩍 줄어들고 있다.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여 주위 동료 연구원들이 대덕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과학자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짙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는 분위기다.

기자가 만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이민이나 외국회사 취업, 벤처기업 창업 등 새 길을 찾아 연구원들이 앞다퉀 연구소를 떠나고 있다"면서 "대덕은 지금 전시(戰時)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1년새 5천여명 떠나

60여개의 정부 출연연구소와 기업연구소가 몰려있는 이 곳에서 불과 1년 사이에 5천여명의 연구인력이 희망 또는 명예퇴직으로 떠나갔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촉망받던 한 연구원은 현지 연구소의 집요한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치고 고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귀국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대덕연구단지에서 일하다 불과 3년만에 명예퇴직을 당해 쫓겨났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그의 가슴엔 도대체 무엇이 남아 있을까.

제32회 '과학의 날'인 지난 4월 21일 김대중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덕 연구원들은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대통령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지만 1천7백여명의 과학자들은 이날 대덕체육공원에 모여 '한국의 과학기술을 살리고 과학자의 생존권을 지키자'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 과학자들은 이날 총 파업을 결의, 서울까지 올라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시간 김대통령은 과기원 강당에서 '과학자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외국 기업이나 대학교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박봉과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제안서만 쓰기에 급급한 출연연구소의 분위기는 작년 구조조정 한파 이후 더욱 가라앉았다.

오후 5시반만 넘으면 연구원들은 밀물처럼 대덕단지를 빠져나간다. 밤새도록 연구하느라 불이 꺼지지 않던 시절은 벌써 옛날 이야기다. 불안한 미래, 이직 등으로 연구의욕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최근 신약을 개발했다는 한 출연연구소 과학자의 이야기. 신문·방송마다 그의 신약 개발을 앞다퉀 보도했지만 정작 그는 우울하다. 신약 개발의 핵심 기술 2건중 한건은 국제특허



金鍾來  
(동아일보 정보산업부 기자)

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2만달러에 가까운 국제특허료를 정부나 그 누구도 부담해지지 않은 탓이다. 개발 실적에만 급급했지 그 다음 일에는 모두가 냉담했다. 더군다나 임상실험에 필요한 엄청난 자금을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그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외국 기업이 이 신약개발 기술을 사주거나 공동개발 형태로 자본을 대길 기다릴 뿐이다. 이도저도 안풀릴 경우에는 5년 넘게 개발한 세계적인 업적이 또 다시 사장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가뜩이나 우울한 대덕단지에는 요새 또다시 구조조정의 한파가 불고 있다. 계속된 정부의 출연연구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소마다 연말까지 최소 10~20%의 연구인력을 내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물밑 스카우트 제의는 연구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능력 있고 실력있는 연구원들에게는 인터넷 E메일을 통해 10만달러가 넘는 연봉을 제의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연구소의 복도마다 연구원들끼리 모여 이민이나 해외취업 정보를 나누는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나마 열심히 일한다는 연구원들조차 기업체를 다니며 기술을 팔고 스폰서를 구하느라 정작 연구시간이 부족한 형편이다.

작년 구조조정으로 대덕을 떠난 연구인력중 절반 이상은 20~40대. 한창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연령층이다. 그렇지만 연구소마

다 중간 연령층이 우수수 빠져 나가면서 중도 하차된 연구 프로젝트가 수북이 쌓여가고 있다.

연구소를 나온 고급 두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연구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회사에 취직하거나 심지어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고 있다.

IMF한파 이후 대덕연구단지에 연구소를 세우려던 계획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미 시작한 공사를 중단 또는 연기하는 기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기술원을 준공할 예정이었던 한솔그룹은 터뒀기 공사를 벌이다가 IMF를 만나 공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1만5천평이 넘는 연구소 부지는 자재들만 쓰레기더미로 쌓여있는 채 그냥 방치돼 있다. 올해중 문을 열기로 한 애경그룹의 종합화학 연구소 역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폐허로 방치돼 있다.

### 기업연구소 공사 중단 속출

새한산업 부설 원자력개발센터는 원전의 계측기 및 관련부품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가 줄어들자 정문 철재를 내렸다. SK텔레콤 중앙연구원은 지난 1월 경비절감을 위해 경기도 분당에 있는 본사로 이전해 갔다.

사정이 이렇게 처참해지다보니까 대덕연구단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10명 가운데 8명이 연구소를 떠나고 싶어하고 절반 정도가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같이 암담한 분위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조영재의원이 작년 9월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연구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연구원들의 79%가 연구소를 떠나고 싶어하며 이 가운데 53%가 대학교수직을, 23%가 창업 등 개인회사 설립을 희망했다. 전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신분불안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의 자율성 결여 18.9%, 낮은 보수 15.4% 순이었다.

또 연구원들의 95.5%가 연구소에 대한 정부 부처의 간섭이 심하다고 응답했다. 연구기관 감독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는데 48.4%가 반대했다. 93%의 연구원들은 일률적인 투자 축소와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반대했다.

이들 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펼친 역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97.8%)을 꼽은 반면 가장 잘 못한 대통령으로는 응답자 6백97명 중 3백11명이 김대중 대통령을 지목했다.

한때 '과학 한국'을 외치던 이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덕의 몰락은 우리 과학기술계와 우리나라의 암담한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과학기술을 신봉하는 척하지만 아직도 당리당락에만 급급한 것도 과학기술인들은 슬픈 것이다.

기자 자신도 올해 과학기술계를 처음 취재하게 되면서, 만나는 과학기술인들마다 왜 그토록 침울하고 자조적이었는지 '알면 알수록' 가슴이 답답해진다. ⑰